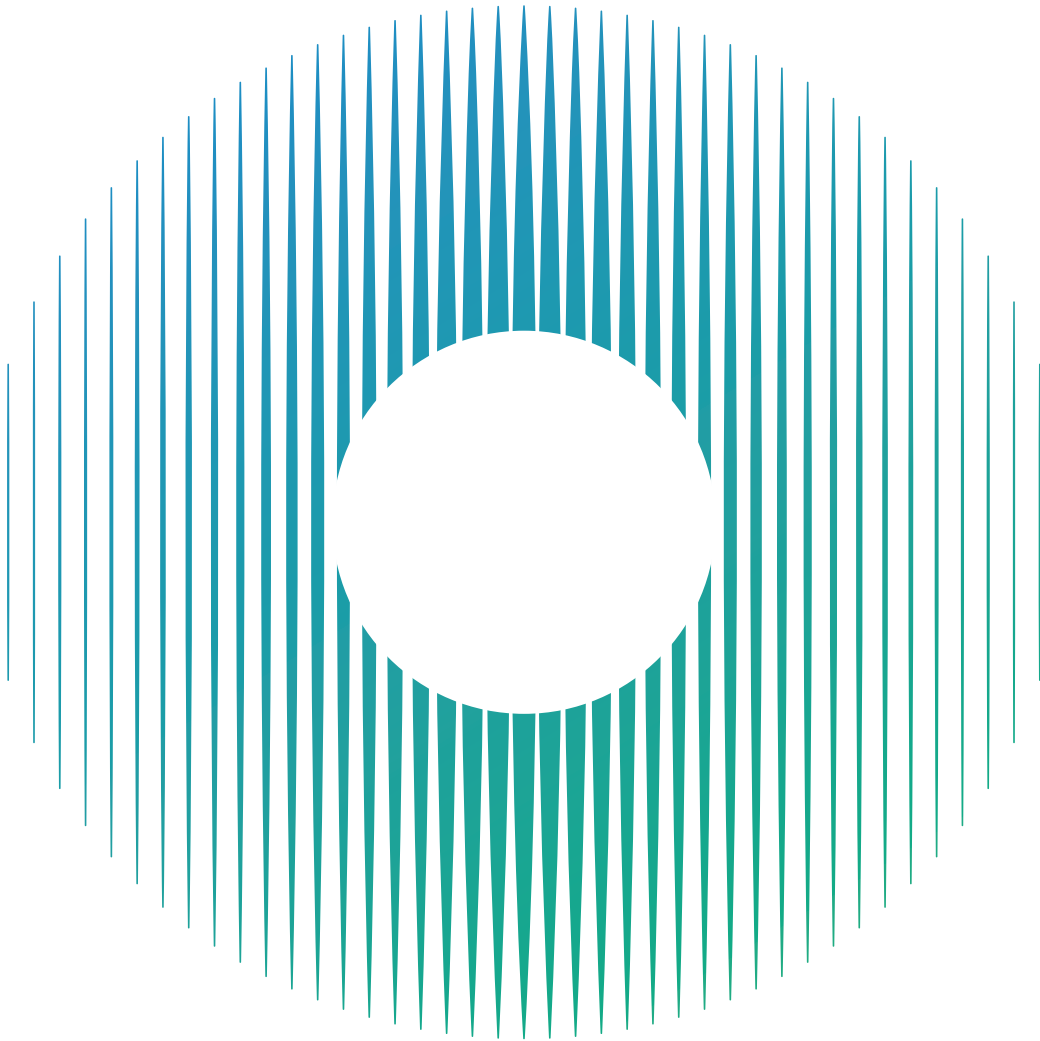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insight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2025년, 10월. vol. 05(격월간)



발행인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발행처 금융산업공익재단 정책연구회
발행일 2025년 10월 27일
제작 (주)현대아트컴

CONTENTS

이슈 노트

AI 임팩트 스타트업-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역

이종익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사업 소개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테마 칼럼 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현진영 (재)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테마 칼럼 2

담힌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일

전상혁 가치있는누림 센터장

테마 칼럼 3

‘부정에서 긍정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 가능한 변화들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AI 임팩트 스타트업-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주역

이중익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1. 서론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거대한 물결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내걸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제조업체의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드론, AI 반도체 등 핵심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산업계 전반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AI 기본법」 역시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의 진화는 이미 '도구적 AI'라 불리는 알고리즘 및 챗봇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생성형 AI를 대표로 하는 '인지적 AI' 시대로 진입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AGI(범용지능), 자율 로봇, AI 의사결정 시스템과 같은 고도화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위 'AI 특이점(Singularity)', 즉 AI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인간 수준의 지능- 더 나아가 행동까지 수행하는 '자율적 AI'의 시대가 2030년 이전에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그림 1].

[그림 1] AI의 발전 방향

AI 특이점 접근(지도학습 → 강화학습)

구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목적	· 정답을 예측하거나 분류	·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 구조 발견	· 행동을 통해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최적의 정책 학습
입력 데이터	· 정답(레이블)이 있는 데이터 셋	· 정답이 없는 데이터 셋	· 상태, 행동, 보상
출력	· 분류, 회기 값, 예측 결과	· 자원축소 결과, 군집별 특징 등	· 정책 또는 활동
예시	· 이메일 스팸 분류, 이미지 라벨링, 주가 예측	· 고객 군집 분석, 문서 주제 추출, 다원 분석	· 게임 AI,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 로봇
평가 방식	·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 구조 평가	· 누적 보상 총합
학습 방식	· 입력→모델→출력 예측→정답 비교→오차 수정	· 입력→패턴 추출→구조 발견(비지도)	· 보상 기반 학습
산업 적용	(금융) 대출 상환 가능성 예측, 부정 거래 탐지, 주가 예측 (헬스케어) 피부암 이미지 분류 (커머스) 구매 예측, 고객 이탈 예측 (제조) 품질 이상 탐지, 고장 예측	(마케팅) 고객 계층화 (보안) 이상행동 탐지 (커머스) 유사 사용자/상품 군집	(로보틱스) 로봇 팔 최적 동작 학습, 자율주행차, 자율 로봇, 게임 AI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게임) 게임 NPC 최적 전략 (생산, 물류) 실시간 경로 최적화, 생산 공정 자동 제어

2. ‘AI for Good’을 향한 움직임

인공지능(AI)은 산업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눈부신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윤리·문화적 대응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오늘날, AI의 역기능은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을 뒤흔들고, 더 나아가 인류사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는 대규모 일자리의 소멸, 정보 왜곡과 사회 신뢰의 붕괴, 차별과 편향의 심화, 개인정보 침해 및 감시 사회화, 그리고 통제 불가능성 등이 꼽힌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제도적 대비와 윤리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AI for Good’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 발전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우선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의 중심 원칙으로 삼는 접근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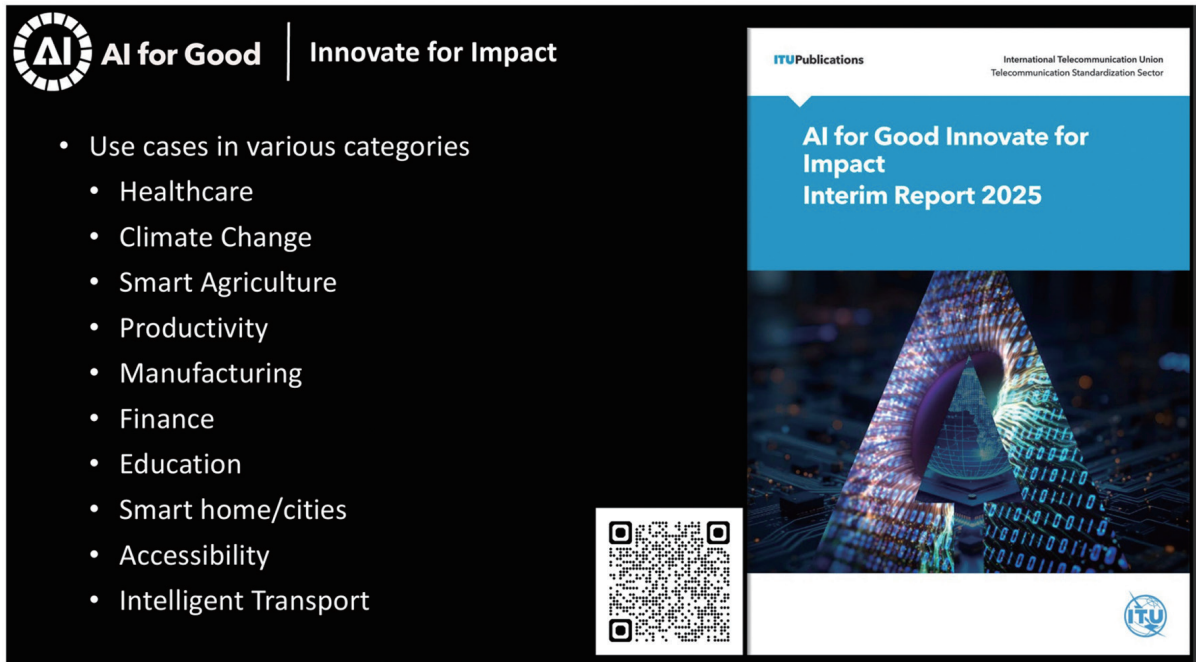
필자가 지난 2025년 여름, 유엔(UN)을 방문했을 때, 이미 UN 산하 여러 기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AI for Good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림 3]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AI를 단순히 기술 경쟁의 도구로 보는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와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Profit보다 Impact를 중시하는 AI 기술 확산

How Europe Funds AI differently : Profit -> Impact

Purpose-Driven Investments	Values-Based Evaluation	Long Term Good over Short Term ROI
Funding is tied to solving societal challenges, not just market opportunity.	Proposals assessed for ethical alignment, inclusiveness, and contribution to SDGs.	Funding favors resilience, sustainability, & democratic impact, even for uncertain ROI
- AI for cancer (Horizon Cancer) - Climate-aware traffic - Digital inclusion in rural areas	- EIC Pathfinder requiring human-centric design - Ethical AI scoring for grants - Rejection if data opaque	- Open Source AI for disaster resilience - Funding to preserve endangered languages - Multilingual LLMs with no commercial scaling

[그림 3] AI for Good의 다양한 적용 분야



우리나라에서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보다 가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AI 기반 스타트업을 교육하고 이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올바른 목표와 가치를 지향하도록 진단·평가·육성·투자를 결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임팩트 AI(Impact AI)’와 ‘AI for Good’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AI를 단순한 성장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에서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 유망한 Impact AI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성과는 국내 AI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중 몇몇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3. 국내 유망한 Impact AI 기업들

1) 워크메이트(Works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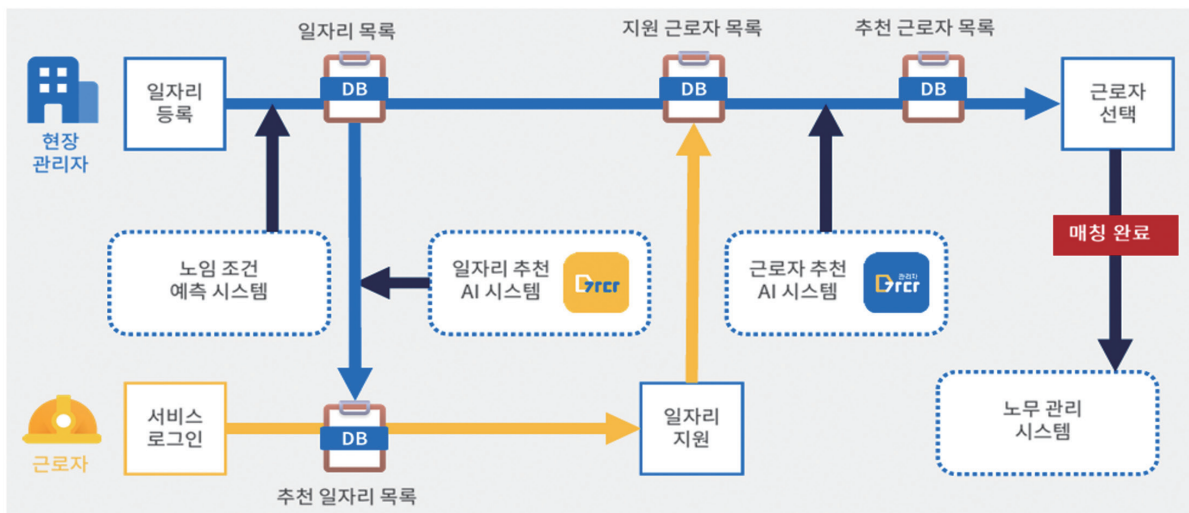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기업은 ‘가다’라는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워크메이트’(WorksMate)이다. 이 기업의 초기 사업 모델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과 건설 현장을 매칭하는 서비스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건설사,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급격히 확대되었고, 회사는 AI를 활용하여 이러한 다양한 니즈에 더욱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4].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참여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 노동자가 필요한 건설 현장을 보유한 건설사, 둘째,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일용직 노동자, 셋째, 이들을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AI는 전국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노임 수준 등 근로 조건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등록된 근로자의 근로 이력, 희망 직무, 근무 가능 지역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근로자를 추천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건설 현장을 자동으로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칭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다. 위치 정보, 거리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교한 추론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바탕으로 '웍스메이트'는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건설 노임 지급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신용 대출, 카드, 보험 등 금융 신용 정보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정밀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새로운 주요 고객층으로 확보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림 4] 웍스메이트의 Impact AI 기술



2) 씨드앤

최적의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리프'(Leaf)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 씨드앤 역시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넓은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등 환경 요소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기반의 정교한 환경 제어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리프'는 실내 공간의 각 구역(높이, 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조건(온도, 습도 등)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하고 여러 변수를 계산하여 최적의 상태로 기기들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공간 내 환경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다. 즉 최적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그림 5].

AI는 또한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결과치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실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실내 공간의 넓이, 층고, 일사량, 용도 등의 데이터와 함께 기상 데이터 및 기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가 학습을 거듭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마다 체감하는 쾌적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하향 임계치를 설정하고, 기기가 필요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AI 기반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약 4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 씨드앤의 Impact AI 기술



3) 땡스카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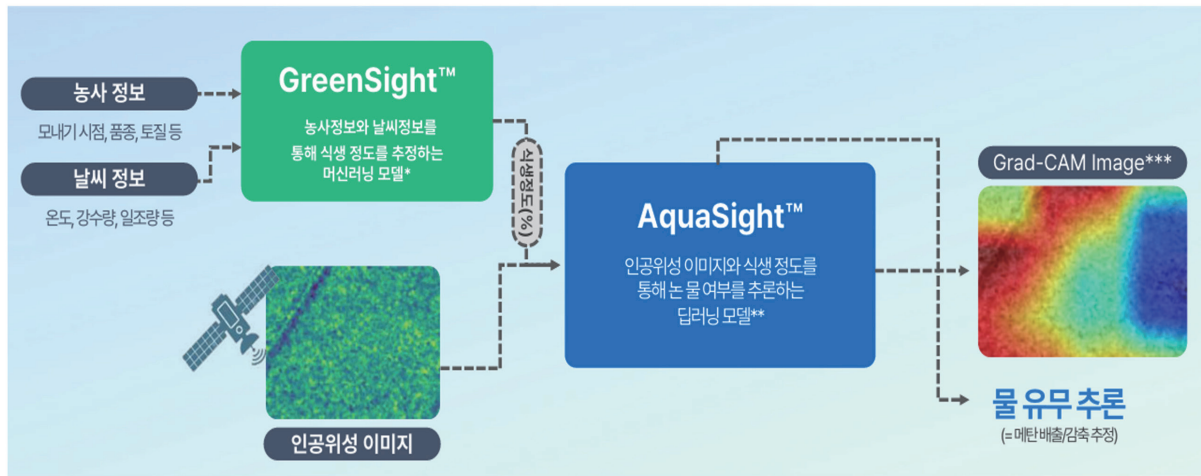
과학적 논물 관리를 통해 탄소 저감과 배출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스타트업 ‘땡스카본’의 AI 기술 ‘해임달’(Heimdall)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0%가 농업에서 발생하며, 특히 벼농사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은 논물이 지속적으로 잠겨 있는 환경에서 메탄(CH₄)이 생성되면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과학적 논물 관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벼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논을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땡스카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물의 양을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에 의한 자동 측정법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물의 양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 조절과 탄소 배출권을 산정한다. 영상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정밀도가 향상된다. 날씨, 구름, 매연 등 다양한 환경 변수를 시가 학습하면서 정확도가 올라간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시는 100%에 가까운 분석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6].

‘해임달’은 학습된 정보에 품종, 토질,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다양한 변수를 추가로 머신러닝으로 추론하여, 벼 생육 상태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임달’을 통해 메탄 배출량을 약 40% 감소시키고, 용수 사용량도 3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농민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6] 땡스카본의 Impact AI 기술



4. 결론

이처럼 AI는 단기간 내에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된다. 특히 그 기술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영역에 활용된다면, AI는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온 어떤 도구보다도 압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AI 기술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AI 기술의 특성과 활용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업의 사업 목적과 비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임팩트 스타트업들이 ‘임팩트 AI(Impact A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혁신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길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12월부터 2년간 총 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찾아가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 자존감 회복, 사회참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 5개 권역(수도권 2, 비수도권 3)에 걸쳐 약 8,000명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700회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존 교육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교육 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및 농어촌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한층 고도화하여, AI 활용법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을 넘어, 고령층이 디지털 사회 속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위험을 예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상권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 2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 ATM기 사용, 병원 접수, 고속버스 예약 등 생활 밀착형 주제를 직접 실습하며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일부 수료생은 ‘디지털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에 선발되어 지역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교육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참여자→강사→지역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본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넘어 ① 디지털 접근권 보장, ② 디지털 금융범죄 예방, ③ 지역 기반의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현진영 (재)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답

베트남 하노이 북쪽, 깊은 산골에는 오랜 세월 궁핍하게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GIF)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지 어느덧 4년. 마을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허름한 나무집은 튼튼한 벽돌집으로 바뀌고, 양돈장을 비롯한 기반 시설이 하나 둘 세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2024년, 인근 마을에 태풍 피해가 닥쳤을 때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돕고,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도 나누었습니다. 외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마련한 자원이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세계 26개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가구 단위의 생산 판매를 넘어서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소액금융을 통해 초기 투자를 지원하며, 사업 규모가 커지면 사회적기업을 통해 판로를 연계합니다.

베트남의 친환경 양돈 사업도 같은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양돈 사업을 기획하고,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친환경 양돈법 교육과 소액금융 지원을 통해 양돈장과 도축장 건립, 사료 구입 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통은 사회적기업이 맡아 하노이 등 대도시에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 소액금융, 사회적기업이 삼각축이 되어 서로를 지지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에서 기회까지: 인도네시아 메단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

이러한 경험은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기준 연간 약 6.99만 톤의 폐기물을 배출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 비중이 높고, 상당량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수마트라주 메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인구 밀집 빈곤가구가 집중된 이 지역은 해안과 접해 있어 매달 조수 간만에 따라 대량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되고, 주민들은 수년간 쌓인 폐기물로 인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메단 지역에서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포괄적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직접 매입하며, 발생한 수익은 개별 조합원과 조합 운영 자금으로 재투자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보건소, 학교, 지방정부 공무원과 협력해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PT GNI'는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현지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으로,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현지 환경 맞춤형 사업운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폐기물이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PT GNI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기성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고, 이를 활용한 동애등에(Black Soldier Fly) 사육 및 처리 기술을 도입해 자원 순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동애등에는 현지 시장에서 상품화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폐기물 선별, 재활용,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다양한 국가에서 쌓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니즈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는 사회적경제 기반 사업을 통해 메단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레기 매립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시에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주민조합 중심의 맞춤형 사회경제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쓰레기 판매와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곤충 및 양계 사육업 등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합니다.

본 기관은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며, 메단 지역은 물론 전 세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보여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략적 협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를 창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6.16.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일

전상혁 가치있는누림 센터장



요즘 우리는 흔히 'MZ세대', '요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이야기하곤 한다. 적극적이고 똑똑하며, 때론 이기적이라는 말들까지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런 통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의 20대와 30대는 학교도, 취업도, 연애도 없다. 햇빛을 본 지 몇 달, 몇 년이 지난 청년도 있다. 가끔은 가족과 말없이 마주한 채 방 안에 조용히 갇혀 지내는 청년. 그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아무도 모른 채 잊혀진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고립·은둔청년'이라고 부른다.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같은 단어로 불려온 이 현상은 뉴스에서도, 정책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24년, 이들을 직접 마주했고 함께 걸어보았다. 사단법인 가치있는누림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협력하여 은둔고립청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청년들을 만나기 전까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왜 혼자 방 안에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세상과 단절된 그 모습은 쉽게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졌다. 이건 그저 게으르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고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무너짐의 결과였다. 가정에서의 방임과 폭력, 학교에서의 따돌림, 끊이지 않는 실패와 무력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며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게 되었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물러나는 것이다.

이런 청년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처음부터 문을 두드릴 순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곳곳의 일상적인 공간부터 찾기 시작했다.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거지역 등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누군가의 주변, 아주 평범한 골목 어귀에도 말없이 숨어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공간씩 천천히 연결의 실마리를 만들어갔다. 단순한 상담이나 일회성 만남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체험홈을 통해 집 밖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새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생필품과 식료품 등 물품 지원을 꾸준히 이어갔다.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단지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데 집중했다. 이런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엔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던 청년이 서서히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해 갔고, 누군가는 짧은 외출로,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용기로, 각자의 속도대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다. 어떤 청년은 “그냥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동아줄을 잡는 심정이었다”라고 표현했고, 그 청년은 여러 지원을 통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스스로도 “괜찮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내 깨달았다. ‘괜찮음’이 영원하진 않다는 걸. 사업이 끝난 뒤, 혹은 일상으로 복귀한 듯 보였던 청년이 다시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들곤 했다. 그 공백기, 즉 지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마음은 회복되어 가지만, 여전히 주변엔 안전한 관계도, 머물 공간도, 나를 기다려주는 이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음 걸음을 지역에서 시작해보려 한다. 단기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곁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청년이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힘을 믿는다.

다행히 이 작은 시도는 지역사회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관심이었지만 점차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 “이런 청년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던 가족, 학교, 주민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고립·은둔청년’이라는 이름 너머, 한 사람의 삶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청년을 단순히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을 닫았던 한 사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을 함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비록 단 한 명일지라도, 이 일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고립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의 몫이다. 그러한 연결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8.14.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 가능한 변화들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1004섬 신안」, 국토 서남단에 위치한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인구 증가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역 전라남도 신안군의 이름이다. 서울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 모두가 총 1,025개의 섬으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은 약 4만 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 최상위권의 초고령사회이다.

신안군의 주민들은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상 미용실, 안경점, 사진관, 각종 상점 등 서비스 이용에 큰 제약이 있음은 물론이고, 간단한 병의원 방문 및 진료를 위해서도 인근 지역인 목포시나 무안군에 방문하기 위해 선박과 차량 등을 여러 차례 이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신안군은 2008년에 설립한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낙도 지원 서비스와 의료비, 생계비,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노인과 아동,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립요양병원을 복지재단 직영 체제로 전환하며 의료취약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의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주민의 외래진료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아 및 지지구조 기타 장애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거동 불편 및 이동의 어려움으로 공공영역인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 이용률이 5% 미만에 그치는 등 공공영역 의료 서비스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한계를 대체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은 신안군 14개 읍면 중 3개 읍면에만 위치하고 있어 11개 면은 치과 병의원의 부재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 및 거동 불편 문제로 9천여 명 이상의 노인 인구는 치과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해 치아 저작기능 불편 가중에 의한 영양결핍으로 신안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384.5)은 전국(298.3), 전남(32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노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계적인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공공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신안군에서 운영되는 「도서낙도 의료취약지 치과이동차량 운영지원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없는 신안군 도서 낙도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구강보건실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중점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4년 6월부터 약 1년간 차량 구입 및 개조사업을 통해 제작된 ‘지역 맞춤형 이동치과차량’은 신안군 지역 내 치과 병의원이 없는 11개면, 구강보건실이 없는 유치원, 초중고교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동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으로 신안군복지재단과 신안군보건소가 운영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각 주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

서비스는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전문 의료진의 활동을 통해 스켈링, 충치 치료, 단순 발치, 구강 교육 및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필수적이거나 이용이 어려웠던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홀로 아픔을 견뎌야 했던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이끌어내고 있다. 정주 여건상 이동에 불편함이 큰 군민들은 마을 깊은 곳까지 찾아가는 이동치과 차량과 진료 서비스를 통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용이 가능했던 의료 서비스를 혼자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이용자의 긍정적인 후기와 이웃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안군복지재단에서 시행 중인 낙도이미용사업, 복지시설 및 낙도 순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있다. 민간영역 지원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지역의 사회취약계층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다양한 사업은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칼럼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칼럼(함께하는 사랑방)」에 실린 글(2025.09.23.일자)을 옮긴 것입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